

다해·제2310호

연중 제3주일 · 하느님의 말씀 주일 · 해외 원조 주일

2025년 1월 26일



제33회
해외 원조 주일
포스터

목 차

02 말씀의 향기
말씀살기

03 평신도 단상
뒤늦은 새해 결심

04 특집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⁴³

05 교구 소식
2024년 신·구약 성경 통독자
현황



QR코드로 교구소식을!
미사 중에는 자제해 주세요.



천주교춘천교구
www.cccatholic.or.kr

입당송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제1독서

느헤 8,2-4 7,5-6.8-10

화답송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를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저의 반석, 저의 구원자이신 주님, 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
제 마음속 생각,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

제2독서

1코린 12,12-30 <또는 12,12-14.27>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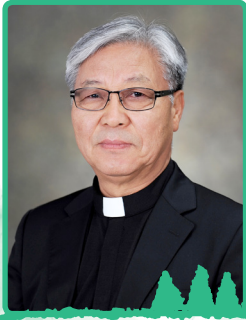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복음

루카 1,1-4; 4,14-21

영성체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송병철 야고보 신부
김화 본당 주임

말씀살기



명절이 다가오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렘과 함께 자연스럽게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느끼는 행복이나 고통만큼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멀리서 지구상 어디인가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 그리고 가까이서 행복을 느낄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음을 의식하게 됩니다.

오늘을 해외 원조 주일과 하느님 말씀 주일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 모두 실천적 삶을 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불과 오래지 않은 과거에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그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희망을 안고 다시 일어나 지금의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함께해야 한다는 거룩한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1독서 말씀은 온갖 고통 속에 유배를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를 전해줍니다. 그들은 지난날의 불충함을 깨달았고 삶이 하느님 말씀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을 다해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초대에 응답합니다.

2독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온 몸인 교회 안에서 기여할 소명을 받았으며 각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한 사람도 쓸모없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해”를 선포합니다. 참된 해방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가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참된 해방과 희망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신자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삶이 너무 고달프고, 자신이 안고 살아가는 걱정덩어리가 너무 커서 늘 울면서 고통스럽게 살았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위로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위에 먼지 쌓인 성서책이 있길래 무심코 펼쳐 보았더니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마태 11,28). 그때 세상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온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기고 살게 되었고 이제는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서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체험은 지금도 사랑의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뒤늦은 새해 결심



지난해 말 ‘1인 가구 시대의 신앙과 공동체’를 주제로 한 교구 토론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청장년 1인 가구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구체적인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토론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청년이 기성세대의 신앙생활을 옆에서 보고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아주 간단명료했다. 기성세대가 스스로 행복하기를, 인생은 살 만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바랐다. 성당에서 활동하시는 어른들이 무심코 하는 “우리는 힘드니까 앞으로 젊은 청년들이 맡아서 봉사해 주면 좋겠어”라는 얘기를 들으며, 어른들이 얼굴은 웃고 있지만 몸은 힘듦을 간파했다. 지나온 시절의 “배고픈 게 얼마나 힘든 건데” 라든가, 고부 관계에 관한 부정적인 편견들은 피부에 와닿지도 않을 뿐 아니라, 청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전에 고통받기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른들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겪어 보니까 괜찮아. 인생은 견딜 만한 거야”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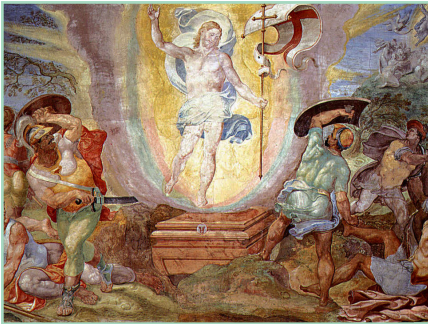
마치 감추고 싶어서 꼭꼭 숨겨두었던 나의 본모습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다. 교회를 위해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며 희생과 헌신을 해왔고, 그것만을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니? 무엇보다도 청년들은 어른들이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었다. 우리 스스로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레 청년 세대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활동하겠구나!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같이 일할 사람이 없거나 자리를 물려줄 사람이 없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낯선 교우, 새로운 교우들을 기꺼이 환대하고 서로 다른 경험, 생각, 방법들을 경청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친교의 시간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서로에 대한 선부른 판단이나 ‘라떼는 말이야’ 식의 설익은 대안 제시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안의 마음의 여유, 공간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2025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어수선했던 시국 때문에 새해 결심을 할 새도 없었다. 주님의 평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희년을 살아가는 나의 새해 결심은 ‘친교’의 실천이다. 사람이 기쁨과 행복을 느낄 때는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이다. 존재 자체로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랑의 친교, 하느님의 자녀로서 나약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우리를 서로 보듬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친교로 ‘꺼지지 않는 희망’의 희년을 살아가야겠다고 뒤늦은 새해 다짐을 해본다.

승강기 대신 계단 이용하기

핸드릭 반 브로엑 <그리스도의 부활>



가톨릭 교회 교리서와 함께 “교리 문해력” 높이기 ⁴³

죽음과 육신의 부활

글 | 안효철 디오니시오 신부

지난해 12월 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구의 각 본당에서는 초고령화 현상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자 공동체의 초고령화와 함께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는 점점 더 많은 교우분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아실 것이나 막상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육신의 부활’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꽤 많은 분들이 그저 막연하게 부활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을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존재로 바라봅니다. 영혼이 정확히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현대 의학과 과학이 인간 육체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며 앞으로 더 많은 탐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만, 분명한 것은 인간은 육신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며 하느님께로부터 영혼과 육신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른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육신은 지상에 남아 썩게 되고 영혼은 하느님을 만나, 영광스럽게 된 육신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958항). 죽음은 본래 죄의 결과이며 그래서 인간이 마지막으로 물리쳐야 할 원수이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례 때에 이미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던 이전의 삶으로부터 죽음을 이미 경험했으며(교리서는 이를 성사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이는 그분과 완전히 한 몸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성취한 것이 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010항).

부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부활은 우리의 육신이 지상에서의 원래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며 **영광스럽게 된 육신이 영혼과 다시 결합되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노화하며,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썩어 없어질 유한한 존재입니다. 부활은 이런 육신이 일시적으로 다시 생명을 얻는 차원을 넘어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얻는 사건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997항). 다만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000항). 육신은 썩어 없어져 소멸되고 영혼만이 하느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의 부활 신앙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에 영광스럽게 된 육신이 다시 영혼과 결합되는 부활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001항). 부활은 우리보다 앞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며,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악인들 또한 부활하여 지옥에서의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998항).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행복의 그날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 이미 그리스도와 결합되었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렇기에 우리의 육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육신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003~1004항).



QR코드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리서 405~416쪽, 988~1019항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2024년 신·구약 성경 통독자 현황

2022년 51개 본당·1,160명
2023년 48개 본당·909명

성경을 읽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 성 암브로시오

55개 본당에서 1,052명이 신·구약 1년 성경 통독에 참여하였습니다.
성경 읽기 안에서 체험된 하느님 사랑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춘천교구 하느님 백성 모두가 말씀살기의 여정을 살며, 하느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그분의 뜻에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사목국 성경사목부 —

지구	춘 천 지 구 (210명)											남 춘 천 지 구 (217명)							
본 당	죽림동	소양로	화천	운교동	양구	효자동	후평동	우두	샘밭	해안	만천	청평	가평	현리	강촌	애막골	퇴계	스무숲	거두리
통독	73	21	5	15	8	12	28	30	7	2	9	17	11	15	2	77	41	41	13

지구	중 부 지 구 (71명)									서 부 지 구 (179명)								
본 당	홍 천	양 덕 원	인 제	서 석	성 산	기 린	원 통	내 면	연 봉	포 천	철 원	김 화	운 천	일 동	갈 말	솔 모 루	가 산	이 동
통독	13	1	8	8	12	7	11	8	3	84	15	6	5	8	9	34	12	6

지구	영 동 지 구 (287명)										영 북 지 구 (88명)							
본 당	임 당 동	주 문 진	목 호	옥 천 동	노 암 동	옥 계	대 관 령	초 당	솔 울	입 암	양 양	동 명 동	간 성	교 동	거 진	설 악 동	청 호 동	물 치
통독	77	11	11	65	16	7	5	28	60	7	17	21	17	9	8	2	13	1

교구 소식 및 교회 알림

만천 본당 사목 방문

1. 31.(금)~2. 2.(주일)

교구장학회

2. 4.(화) 11시, 교구청 대회의실

사제평의회 · 참사회 및 인사발표

2. 4.(화) 14시, 교구청 대회의실

사제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1. 28.(화) 토마스 아퀴나스

오상철·조철희 신부

1. 31.(금) 요한 보스코

오상현·안수일 신부

교구 직원 채용 공고

근무지: 춘천교구 예수 성심 영성원

모집인원: 약간 명

업무내용: 주방, 청소 및 빨래, 시설 관리

제출서류: 이력서(경력사항 상세 기재), 본

당 신부 추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진단서, 관련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

함),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면접일시 개별통보)

제출기한: 2. 28.(금)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처: 춘천시 공지로 300 천주교 춘천

교구청 교구 법인 담당(우편번호 24338)

☎ 033-240-6022, 6029 문의

제33회 해외 원조 주일 담화



굶주린 이들, 병든 이들,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는 일은 바로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교구 제단체·모임·미사·피정·교육

예언서 통독 피정

1. 31.(금)~2. 2.(주일) 가톨릭회관

1월 예비 신학생 모임

1. 26.(주일) 14시, 춘천·남춘천: 퇴계 성당

중부: 흥천 성당 / 서부: 포천 성당

영동: 노암동 성당 / 영북: 교동 성당

부활성당 설 합동 위령 미사 안내

1. 29.(수) 9시, 11시

27.(월) 정상 운영 합니다.

☎ 033-251-7073 문의

2025년 1학기 '여정' 수강자 모집

과목: 마르코복음 / 기간: 2. 24.(월)~6. 17.(화)

비대면: (월) 19~21시 / (화) 10~12시

대면: 교구교육원 또는 가톨릭회관 (수) 19:00~

20:40 / 포천 (금) 10:50~12:30

신청: 본당사무실 또는 개인

수강비: 비대면 3만원 / 대면 4만원 / 신탁

131-010-215773 재단춘천교구천주교회

마감: 2. 12.(수)까지

☎ 033-240-6020 성경사목부

예비 신학생 동계 피정

2. 4.(화)~6.(목)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 교 (배론성지)

신청: 1. 31.(금)까지, 본당 사무실

예비 수도자 동계 피정

2. 17.(월)~18.(화) 가톨릭회관

신청: 2. 7.(금)까지, 본당 사무실

☎ 033-240-6078

체나콜로 모임과 월미사

2. 15.(토) 10~13시, 효자동 성당

미사: 11시, 조영수 마태오 신부

☎ 010-3669-2076

묵주기도 100단 봉헌 및 감사 미사

2. 7.(금) 19시, 화현 이벽성지

오시는 길: 화동로 447(이벽 유적지)

☎ 031-531-2234 화현 이벽 성지

재속프란치스코 춘천형제회 월례회

매 셋째주 (토) 13시, 말당회관 3층

☎ 010-8392-8972

2월 카나 혼인 강좌

2. 8.(토) 18:30, 입암 성당, 일동 성당

대상: 결혼을 앞둔 부부/관면혼배를 위한 부부

☎ 033-240-6095 가정생명환경부

가톨릭 이주민 센터 미사 안내

베트남어 미사(Vietnamese Mass): 8:30(Sun)

영어 미사(English Mass): 15:00(Sun)

장소: 춘천시 동내면 학곡서 3길 32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2. 9.(주일) 14~16시, 퇴계 성당

예약 후 정해진 시간에 상담

천주교 인권 위원회 위원 차진태 모세

☎ 010-3721-9144

행복한 가정과 부부를 위한 146차 ME 주말

2. 14.(금)~16.(주일), 가톨릭회관

대상: 결혼 3년 이상 부부, 비신자, 신부님, 수도자

신청: 본당 사무실, ME 대표부부

☎ 010-5579-6826, 010-8242-8018

1학기 명도학당 대면·비대면 강좌 안내 -은총을 얻는 그리스도인의 삶

강사: 기정만 에제키엘 신부 / 박종수 요한

세례자 신부 / 특강: 김도형 스테파노 신부

강의기간: 3. 10.(월)~5. 19.(월) 10주

접수기간: 2. 2.(주일)~2. 23.(주일)

대면(월 19시, 가톨릭회관), 비대면(유투브) 병행

수강료: 2만원(신탁 131-018-771156 평협)

신청: 본당사무실 (대면, 비대면 반드시 구분,

개인 신청시 010-6318-6002로 문의 후 카

톡 또는 문자 접수 가능)

할인특전: 성직자, 수도자 면제

☎ 010-6318-6002 문의 춘천평협

본 당 알 림

영동지구 상설 고해소

매 (금) 14~17시, 입당동 성당

죽림동성당 "주일밤미사 · 평일낮미사"

주일 밤: 매 (주일) 21시

평일 낮: 11시 연중무휴

누구나 오실 수 있고, 언제나 환영합니다.

독일 디지털 보청기
동서 의료기 백화점

☎ 033-647-6063(강릉 입당동)

☎ 033-531-7887(동해 묵호동)

우명숙 글라라 · 김길영 마르티노

타파웨어 춘천 중앙점

무공해 무독성 김치통, 냉장 · 렌지용기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타파웨어

정수기, 혼수용품

중앙시장 제일백화점 2층

☎ 010-9042-3638 김소정 안젤라

#춘천 모든 굴삭기
불도저 렌탈(임대)

토목, 조경, 보강토, 토사운반, 불도저

경지정리 등, 각종 난공사, 무료 견적

☎ 010-6311-7989

최찬욱 요한 · 이은경 테오도로

봄내베이킹

플라워 케이크 주문 제작

강습, 민간 자격증

시청길 10번길 9

☎ 010-9285-0792

임정빈 미카엘라 · 전정구 베드로

인 준 시 설

보금자리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학습지도(국어, 영어, 수학 등)
시간: 18~20시 ☎ 033-244-5118

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 직원 모집

간호사, 간호조무사
☎ 031-589-0330 문의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노인요양원입소자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분
운영: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 033-458-9422 몬띠노인요양원

성골롬반의집 조리원 모집

분야: 조리원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방문, 팩스, 이메일 colum2004@hanmail.net
☎ 033-262-0935~6 팩스 262-0937

희망의 일터-회사 서류 봉투 제작

편지 봉투, 각대 봉투, 카드 봉투 인쇄 제작합니다.(검정, 군청 단색) 춘천시 영서로 1925-23
☎ 033-261-0199 문의

운교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목욕) / 주간보호 어르신 모집
대상: 춘천시 지역 노인장기요양등급 수급자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모집(연중 모집)
대상: 자가용 운전 및 도보 가능자
☎ 033-255-8980, 010-4274-1666

강원이주여성상담소

이주여성과 동반가족의 위기상황 대처 및 지원
상담·법률·의료·통번역·심리치료지원, 보호
시설연계 / 평일 (월)~(금) 9~18시
☎ 033-244-1366, 9544

일 반 알 림

가톨릭 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안내

3. 24. 이탈리아 알프스 프랑스 11일(500만원)
4. 23. 튀리키에 그리스 12일(525만원)
5. 3. 동유럽 발칸 메추고리에 15일(575만원)
5. 20. 유럽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525만원)
☎ 010-5235-3533 www.catholictravel.co.kr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나이들, 새로운 소명: 지나온 삶을 성찰, 노
년을 의미 있고 충만히 살려는 프로그램
일정: 3. 17.~26./4. 21.~30./5. 12~21./6.
9.~18. (10일, 100만원)/장소: 홍천/대상: 60세 이상
☎ 010-7451-9707 문의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2. 10.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 17. 베트남 라방 성모성지 (5일) 150만원
3. 14.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3. 28. 터키, 그리스(사도바오로 발자취)(12일) 480만원
5. 6.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12일) 560만원
☎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꽃동네 젊음을 위한 성소 피정(사랑에 머물다)

2. 8.(토) 14시~9.(주일)15시, 꽃동네사랑
의영성원(참가비: 5만원/1인 1실)
대상: 고2~만35세
☎ 010-4830-2820

한티 가는 길(도보순례)

3. 1.~3./4. 10.~12./5. 22.~24./6. 19.~21.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11시 입실, 17시 마침
강사: 류 에프렘 수사/참가비: 25만원(2박3일)
☎ 010-6791-0071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성경완독: 2. 14.(금)~22.(토)/3. 14.(금)~22.(토)
☎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2. 14.~15. / 3. 8.~9.
3박 4일: 2. 17.~21.(4박5일) / 2. 26.~3. 1.
8박 9일: 3. 13.~21. / 4. 23.~5. 1.
40일: 4. 21.~5. 30.
장소: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 010-4906-5722, 031-953-6932 신청

가톨릭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25학년도 봄학기 수강생모집
1. 20.(월)~2. 14.(금), 커피바리스타 자격증과정
등 37개 강좌 / 접수: 가톨릭관동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lifelong.cku.ac.kr 접속 후 수강신청

상장례지도사학교(봉사자, 국가자격취득)교육생 모집

봉사자반(10주): 3. 8.~5. 17. 매(토) 9~18시
자격증반(300시간): 3. 8.~11. 1. 매(토) 9~18시
장소: 의정부 교구청내 신앙교육원&대회의실
☎ 031-874-6272 cafe.daum.net/c-sjr 참조

제34차 가톨릭춘천신협 정기총회 안내

일시: 2. 7.(금) 14시
장소: 죽림동 주교좌 성당

◆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넉넉한 마음과 따뜻한 나눔이 있는

설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불어 올해도 저희 가톨릭춘천신협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가톨릭춘천신협 본점(죽림동) 033-255-6742
지점(거두리) 033-262-6742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위성 TV 184번 / olleh tv 231번 / B tv 307번 / U tv 274번

평화 장례를 돕는 사람들(춘천)

힘들고 어려운 장례 후불제로 진행
(제휴 장례식장 할인)
묘지관리·이장·벌초/무엇이든
물어보세요(전국 어디나 가능)
☎ 010-2678-9789 홍성식 토마스

함경도 아바이 젓갈(속초)

한국인의 밥상 KBS 1TV 촬영
가자미식해 촬영지 / 가자미식해,
명란, 창란, 오징어젓갈, 각종 젓갈
☎ 632-6561, 010-3341-0470
양수근 임마누엘·박순옥 임마누엘라

춘천 장례식장

검안의 상시 대기
교구 협약 특별혜택
☎ 010-4479-4414
이성범 요셉 사무국장
전국장례지도사연합회

MZ에스테틱

피부관리에 관심있는 분 전화주세요
100%예약제 / 첫 손님 20%할인
춘천시 춘주로 55(3층)
☎ 010-2506-9913
한민지 효주아네스·홍승후 켄마

속초 나드리 여행사

페낭, 쿠알라, 말라카 / 베트남
다낭, 후에, 짜기우 3박 5일 / 터
키 일주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7대교회, 에페소, 이즈밀
☎ 010-5373-8181 어일훈 느헤미야

대건 건설·조경·중기

각종 굴삭기, 덤프 임대
토목·택지·조경 공사·객토
☎ 010-5361-5641
한성근 대건안드레아·최순화 가브리엘라

스타키보청기

춘천난청센터
청력검사/ 난청상담/ 보청기상담
춘천 이마트 건너편 위치
☎ 033-251-3131
김형근 프란치스코

산골농장 흑염소 건강원

"청정 양구" 자연 방목 흑염소
"30년 전통"의 농장 직영 건강원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 010-6443-4811
신양순 다리아